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9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 멋쟁이학교 5학년이 9월 8일(월)~10월 3일(금)까지 해외문화체험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급 학교가 개학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생일) · 전경희 집사 가정  
정연갑 · 이운순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6 호

2025년 9월 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돌들이 소리를 것이다

지난 8월말, 어린이학교의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로 학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의 8년 만에 방문한 전주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았고 변화한 거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지니고 있는 곳임을 배우고 왔습니다.

전주의 시내를 지나는데 한 언덕길 양쪽으로 커다란 건물 여러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곳의 이름은 '예수병원'. 이곳은 오래전 전주 지역을 찾은 7인의 선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130여년 전인 1891년, 조선에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건너간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시카고와 내슈빌에서 조선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이 강연을 들은 4명의 선교사에 3명이 뜻을 더해 이듬해인 1892년 2월, 7인의 선교사가 긴 여정 끝에 조선에 입국합니다. 이후 전주에 선교부를 설립하고 5년 후엔 역사적인 첫 세례식이 거행되고 1898년 11월, 마티 잉골드 선교사에 의해 의료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은송리에 예배처를 마련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 전주 서문교회의 시작이었으며 이후 20년 만에 약 12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주에서 성경 번역이 완료되어 한글성경이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1905년 학교(신흥학교, 기전여학교), 병원, 고아원을 세워 서로 협력하며 조선을 돌보고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씨앗은 민족정신으로 피어나 1919년 3.1 운동을 주도하였고,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던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는 폐교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7인으로 결단으로 시작되었던 조선을 위한 복음전도는 후에 1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주를 찾아 호남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귀한 사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과 전주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을 돌아보고 전주가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임을 배우고 나오니 새삼 전

주의 거리 곳곳에 참 많은 교회와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날, 전주의 유명한 관광명소인 한옥마을도 돌아봅니다. 예쁜 카페들과 소호샵들, 전통적인 체험을 할 수 곳들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 전주!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맛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8년전에 왔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사주, 팔자, 궁합'이라고 써 있는 가게들이 마을 양쪽으로 길게 줄지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함께 갔던 학생들이 물어옵니다.

"선생님, 전주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독교 지역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점집이 많아요?" "진짜 사람들이 저런 걸 물어봐요?" "사귀면서 왜 궁합이 궁금해요? 좋아서 사귀는 거 아니에요?" 관광지니까.. 그냥 사람들도 재미로 하는거야.. 라고 답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꾸짖어달라고 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것이다."

전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고,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며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와 교육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문화와 재미와 유행이라는 명목으로 흔들리며 분별함을 잃어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잠잠하다면 예수님께선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서도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책임져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 한주간의 말씀

“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  
<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00, 449 / 204  
기도 :  
성경 : 신명기 11장  
제목 :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십시오

1-7 당신들은 기억하십시오.

해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적용: 먼저 된 사람들(선생, 어른, 경력자)로서 신앙에 집중하자.

8-21 당신들은 가르치십시오.

해석: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방법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적용: 하나님 말씀을 빠지지 말고 잘 보자.

22-32 당신들은 지키십시오.

해석: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이는 것으로도 기억해야 한다.

적용: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자.

## 부루더호프공동체 방문기

이 글을 읽는 순간 모두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부루더호프공동체에 방문했다니.. 사실 새싹방 존목사님(최요한목사님)부부의 인도로 브루더호프 한국공동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존목사님 가정이 그 공동체 멤버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안 사실입니다. 소풍가는 기분으로 공동체에 줄 선물을 준비해서 공동체가 있는 강원도 영월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이역만리 유럽에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기에 강원도에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도 근 20년 공동체교회에 다녔고, 그루터기에서 6년을 공동체생활을 해서 공동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던 터라 더 궁금했습니다. 두 시간반을 달려 강원도 산골을 돌아 브루더호프 공동체마을에 도착했고, 첫인상이 참 좋은 곳에 터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펜션으로 사용된 곳을 공동체에서 인수해서 그동안 가꾸고 보수했다고 합니다. 공동체분들의 수고와 땀이 느껴지더군요. 공동체 식구들은 스무 명 정도로 오붓한 분위기의 네 가정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담당하시는 캐빈(영국국적 한국인)형제님이 공동체 곳곳을 안내해주시면서 영국의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한국에 파견나오게 된 사연과 과정을 일일이 소개해주셨습니다. 스무명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국적 다문화로 이뤄져있습니다. 다같이 먹는 점심식사는 마치 우리공동체와 흡사했습니다.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수제 햄버거, 패트 굽는 호주형제의 즐거운 모습, 그늘없이 해맑게 뛰어다니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 '여기도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모델로 삼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정담회를 가졌고, 공동체에서의 삶과 안내해주시는 형제의 가정사를 통해 역경과 고난을 통해 지속해가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눈물 없이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느 가정이, 어떤 이가 아픈 사연이 없을까요? 이런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해주심을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고,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길 해질 무렵에 방장님이 원조집을 무시하고 찾아간 막국수집은 요즘 말로 '신의 한수'였습니다. 다음에도 꼭 가 볼 랍니다. 영월 거기 가는 길에...

새싹사랑방 석용범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에베소서 4 : 31-32  
2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시편 65 : 2-3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18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이사야서 55 : 7, 에베소서 4:31-32 설교자

성가대 찬양 251 그루터기사랑방

설 교 “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3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이승호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거룩하신 하나님,

공동기도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용서함을 입은 사람들로써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의 시작.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에 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실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다면, 이제 그 생명의 물줄기를 삶의 현장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뽑아야 하며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용서의 완성. 용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빛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자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9월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덧 한 해가 얼마 안남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계속 있을 것 같던 더위도 이제 밤에는 제법 쌀쌀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9월은 '지구촌 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이 많이 늘었다는 것과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훨씬 넓은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열렸고, 전 세계가 훨씬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9월은 '지구촌 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맞게 지도와 지구본이 나오고, 점심마다 읽어주는 책에 세계의 여러 나라와 문화, 이야기들이 가득 있는 책들이 나옵니다. 우리와 생김새도 다르고,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세계다문화 만들기 세트로 다양한 문화를 재밌게 만들어보며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훨씬 커지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어린이학교 9월 말씀입니다. 9월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를 잘 지냈습니다.

9월이 되어도 여전히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학교에 풀이 많아서 풀 속에 사는 곤충들이 여기 저기 튀어 다니고, 어린이

배움과 가르침

친구들도 더위가 힘들어서 요즘은 바깥 놀이보다 실내 놀이를 더 많이 합니다. 얼른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바깥 놀이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임원들이 진행하는 첫 회의에서 부서와 부원이 정해졌습니다. 놀이부, 도서부, 시설관리부와 체육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5, 6학년은 철학 특강을, 1, 4학년은 도서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번 학기에 총 4회 있을 예정입니다. 철학 특강은 '에포케 : 일상 속 인문학 독서 모임 커뮤니티'의 회원 두 분이 오셔서 해주시구요. 1, 4학년은 의정부와 포천 도서관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1회차에는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지리산을 추억으로 뒤로 미루고, 멋쟁이학교는 새 학기의 첫 일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간표와 과제들이 멋쟁이들을 반겼습니다. 규칙적인 기상을 통해 방학 동안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청산하는, 멋쟁이들의 얼굴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지리산 종주를 해낸 것이 무색하지 않게, 대부분은 5바퀴의 운동장 뛰기도 금세 적응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서, 동아리, 수업반 등 여러가지를 확정하고 시작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공동심화학습은 <이단 바로 알기>란 주제로 문을 열었고, 열린수업은 전통적인 시작으로 교장 선생님의 <멋쟁이 교양>을 진행했습니다. 이 와중에 5학년은 학생회 및 해외문화체험을 위한 준비로 눈코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공교롭게도 6학년도 9월 모의고사의 시기와 겹쳐, 힘을 쏟느라 다른 날짜에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학기를 힘있게 시작한 것 같아, 참 보기 좋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장성아 선생님과 5학년이 해외문화체험 여행을 위해 유럽으로 떠납니다. 여행을 떠난 동안에는 지난 학생회가 자치 활동을 담당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